

5·18 암매장 추정 유골 3구 해남에서 발굴

해남읍 백야리 육군 31사단 산하 예비군훈련장 인근 야산에서 조사위, 계엄군 참여 장병들 매장 증언 확보해 발굴 작업 전교사 보관 후 암매장 민간인이나 광주 외곽 지역 희생자 추정



해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확인됐다. 지난 2020년 5·18진상조사위원회가 5·18당시 사망자 등의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단독 보도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육군 31사단 산하 해남 예비군훈련장 인근에서 5·18당시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3구가 발굴됐다.

5·18 당시 사망자 일부를 가매장후 전남 군부대 등 곳곳에 암매장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4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하룻만인 15일 3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조사위는 발굴한 유골을 5·18암매장 유골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골은 예비군 훈련장 바로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남 예비군훈련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발굴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5·18 당시에도 해남 예비군훈련장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동안 암매장 사건을 조사하던 조사위는 5·18 계엄군으로 참여한 육군 20사단과 육군 31사단 장병들로부터 해남 예비군훈련장에 유골을 매장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발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위는 이 유해들이 이곳에 묻힌 경위에 대해 2가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경우는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계엄군 작전지역에서 사망한 민간인 시신을 수습해 전남

계엄군 사령부인 전투교육사령부 연병장 등에 임시 보관했고, 이후 전남지역 곳곳에 가(암)매장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광주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유해들이 관에 들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 없이 시신만을 묻을 경우 지역민들의 눈에 띄어 신고가 될 것으로 여겨 옷을 벗긴 채 관에 담아 매장했다는 증언도 첫번째 경우에 힘을 실고 있다. 조사위는 이 추정이 맞을 경우 유류품조사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5월 21일 전남도청 발표 후 계엄군이 광주 외곽지역으로 후퇴해 광주를 봉쇄하는 작전을 펴는 과정에서 자행된 집단 발표에 의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광주 봉쇄작전에 투입된 20사단 장병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해남지역에서 민간인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집단발포해 사살했다는 증언도 이 추정에 힘을 실고 있다.

조사위는 16일 조사단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매장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어서 추후 발굴 유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유해에서 총상의 흔적 유무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후 유해에서 DNA를 추출해 5·18행방불명자 가족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기요금 인상... 4인 가구 월 7000원 추가 부담

16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매달 7000원 가량이 추가 부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1분기 13.1원 인상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인상이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다만 가스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000억원에 이른 만큼 당정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46.6원에서 8원 오른 kWh당 154.6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 4인 가구 월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 오른다. 도시가스는 월평균 3861MJ(메가줄) 사용하는 4인 가구라고 가정했을때 월 4430원을 더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는 월 74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영록 지사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수용해달라”

무안 지역민에 큰 절하며호소 “서남권 발전 위해 꼭 필요하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군(軍)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수용해달라며 무안 지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이 민간공항과 동시에 진행되면 16년 넘도록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서남권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관련기사 2면>

김 지사의 이날 발언으로 향후 무안군의 입장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발전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옮겨오는 것을 무안군이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을 함께 무안공항으로 옮겨와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안 지역민들에게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큰 절까지 하면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국가계획에도,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발목이 잡혀 16년 넘도록 국제선과 국내선이 분리된 반쪽짜리 공항으로 남아있다”면서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공항과의 통합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군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선만 운항중인 무안공항에 국내선, 군 공항까지 들어서면 무안군 역점사업인 항공산단 등 항공산업과 K 푸드융복합산단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안군민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겠다”면서 “이전지역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군 공항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또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안시로의 승격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24시간 운항으로 인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김 지사의 담화와 관련, “김 지사께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나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다”면서 “급하긴 하지만, 성급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사업 성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오늘 담화는 또한 길을 나아간 것만 만큼 조금 더 기다리고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